

쇠와 함께 살아온 30년

人生



김종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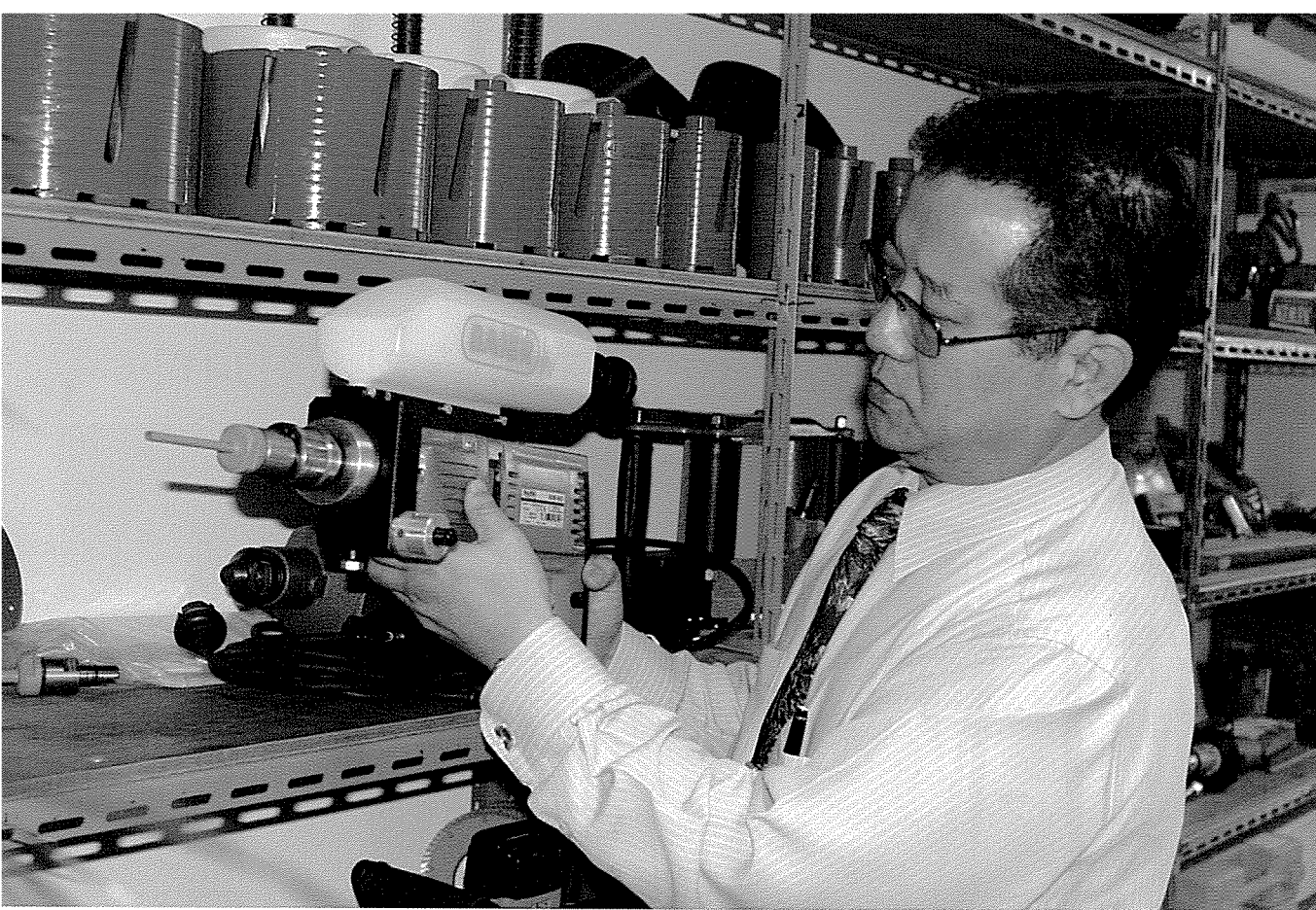
(주)동서종합기계(대표 김종일 www.baierasia.com)는 강한 믿음과 투철한 창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은 물론 항상 다양한 정보와 고급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 축적을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 공구기계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업체이다.

김종일 대표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첫 직장을 철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철과 인연을 맺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철과 관련된 업무는 3D 업무에 해당, 꺼리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으며, 그러던중 1990년 (주)동서종합기계를 설립하고 15년의 세월을 을지로 4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철과의 인연을 지속해 오고 있다.

김 대표는 단순히 제품만을 공급·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 수행결과 지금은 공구와 관련한 기술특허를 30여가지나 받았으며,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부산신기술인증서' 까지 수여받았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독일에서도 받아 그의 제품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가 신제품 개발시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얼마나 실용적인가?' 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으로 이 점을 항상 중시하며 신제품 개발에 매진한다.

(주)동서종합기계가 자신있게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다이아몬드 건식 코아드릴'은 미세한 함마기능과 고정질의 드릴



공구와 관련된 특허를 30여가지나 가지고 있는 김종일 대표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임한다.

기능으로 소켓의 구멍 뚫는 일이 수월하며 종전의 습식코아드릴의 불편함을 해소한 제품으로 사용법이 간편함은 물론이요 무소음의 제품으로 작업을 한층 수월하게 도와준다.

그동안 가스, 온풍기, 토관, 에어컨, 정수기, 전기, 수도배관 등의 설치 작업시 장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무겁고, 물을 주어야 하며, 시끄럽고, 더디며, 끝 부분이 평하고 나가는 불편함이 있던 습식코아 대신 BAIER 건식코아드릴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빠르게,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BAIER 건식드릴의 무게는 5kg으로 가벼우며, 물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고 소음이 없고, 빠른 회전속도로 일 능률이 높여주며, 철근도 잘 잘려 나가 철근작업도 완벽하여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인기상품 '벽 흡파는 기계'는 바이어만

이 지나는 현장경험 40년이 증면된 탁월한 기능을 제품으로 힘 안들이고 깨끗하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 특히, 파이프, 케이블을 매설할 때 벽, 바닥을 자동(수도)으로 흡을 팔때,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또한 집진기가 연결되어 있어 먼지가 완전히 흡입되어 깨끗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다.

김 대표는 합기도 공인 5단의 무술자로, 세계합기도 협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한다.

그는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에너지를 새로운 제품 개발에 쏟아내고 있다. 지금도 그의 사무실에서는 공구 기계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쇠와 기름냄새가 공존하며, 새로운 기술의 제품이 만들어 지고 있을 것이다.

BN